

주일예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오전 (2부) 7시 30분 7시 30분
오전 (3부) 7시 30분 7시 30분
오전 (4부) 7시 30분 7시 30분
금요일예배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오전 (1부) 7시 30분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10시
오전 (3부) 2시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7시 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8월 11일 (제702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 럼

내면이 보인다

28년 동안 나는 사람을 상대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속까지 다 보인다. 내가 경험한 바, 사람의 내면은 외면으로 나타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의 내면세계는 곧 그 사람의 언어, 의상, 헤어스타일이나 표정, 걸음걸이 등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내면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다.

꽤 오래 전, 5개 국어에 능통하며,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자와 처음 대면할 때의 일이다. 그는 나와 마주 앉았을 때, 다리를 끈 것도 모자라 발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들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와 대화하기 전이었지만 그의 태도만 보고도 그 속에 교만이 가득함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예 양말을 벗어 던진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얘기했던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소설이 있다. 어니스트라는 소년은 바위에 새겨진 인자하지만 위엄 있는 얼굴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소년은 착한 행실과 고상한 인품을 지닌 설교자로, 언행과 사상이 일치하는 성자의 모습으로 변했다. 후에 보니 큰 바위 얼굴은 장성한 어니스트, 곧 자신의 모습이었다. 내면의 것이 외부로 표현된 경우다.

내장이 깨끗한 사람이 피부가 깨끗한 것처럼, 내면이 건강하고 지식과 교양이 있어야 인격이 갖춰진다. 당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모르겠거든 당신의 언어, 의상, 헤어스타일, 태도를 돌아보라. 그것이 당신 내면의 세계이니까, 품격은 내면으로 뽑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내면을 살찌우고 가꾸자.

다섯 번 생각할 것 열 번 생각하라

지루한 장마가 끝난 지난 5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3주간의 하계산상집회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전국에서 성산으로 몰려들어 성전은 입추여지가 없었다.

집회 첫 시간, 총회장 목사님은 먼저 “내가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까지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며 통성기도를 시키셨다.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깊게 갈

에 유용한 말씀이란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섯 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열 시간 기도한다면 응답은 따 놓은 당상일 것입니다. 또 다섯 시간 공부할 것 열 시간 공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점검할 것 두 번 점검하고, 다섯 번 돌아보면 것 열 번 돌아보면 사고가 나겠습니까? 어디 그 뿐입니까? 다섯 번 생각할 것 열 번 생각하면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다섯 번 관찰할 것 열 번 관찰하면 놓친 부분까지도 다 찾아낼 것일

보니 그릇을 잘 씻은 다음에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아놓는 것입니다. 씻어서 그냥 얹어놓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다른 애들보다 일도 많고 느리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소년은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두 번 할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돌아볼 것 두 번 돌아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본사에 알려져 그 소년은 일약 본사총괄본부장 자리에 까지 올랐습니다.



하계산상집회(2013년 8월5일 ~ 22, 장성예루살렘기도원)

아열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땅에 사는 처세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가장 완벽한 윤리원칙입니다. 이를 실천에 옮기면 사회에서, 단체에서, 가정에서 본이 될 뿐 아니라 인정을 받게 되고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41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보려 합니다. 이의 근본적인 내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법을 지양하고, 사랑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를 확대 해석해보면 우리의 삶

니다. 이를 종합하면 의무 이상을 하라는 말씀이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며, 노력할 수 있는 한 최고로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이 잘 팔리지 않자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의 그림이 그러는 족족 팔려나가는 이유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3일 동안 그린 그림은 3개월이 지나도 팔리지 않지만, 3개월 동안 그린 그림은 3일이면 팔리는 법이래네.”

그럼요, 곰탕도 조금 끓인 것보다 오래 끓인 것이 맛있는 법이고, 된장도 1년 된 것보다는 2년 숙성된 것이 이 더 깊은 맛을 내는 법입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인 아웃백의 주방에서 일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설거지였는데, 점장이 그 아이를

성공하고 싶습니까? ‘오리 가져면 십 리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십시오. 명화인 ‘벤허’는 시사회를 무려 100 번이나 봤습니다. 그래서 불후의 명작이 된 겁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 하면 보통 사람이 됩니다. 남들보다 더 해야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나은 삶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나도 이기기 못하는 자가 어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게으름 나, 나약한 나를 이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의무 이상을 다하여 성공의 문을 열시다.”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태해진 삶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하계산상집회가 앞으로 2주 더 남았다. 꼭 참석하여 영·혼·육을 알차게 보강하길 바란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예배 전에 보건체조를 했다



식사들의 역임으로부터 해방되다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신28:1)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구질구질하고 초라한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능히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성공하려면 어떤 한 분야에 미쳐야 합니다. 어느 분야든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혹 어떤 일에 통달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광(狂)적이어야 합니다. 즉 마니아(manial)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필코 정신', '올인(All-in)정신', '못 말려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많은 위인들이 거쳐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道)를 넘는 열정과 꺾이지 않는 도전으로 그 분야의 개척자가 되었고, 선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적당주의나 유시무종(有始無終)의 성격으로는 인생의 진수(眞髓)나 성공의 극치를 만끽할 수 없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는 그림을 위해 자신의 귀를 잘라냈습니다. 미쳤지요. 그러나 그는 명작을 낳았고, 후세는 그를 미술의 대가(大家)라고 칭합니다. 영국 리버풀이라는 도시에 별 불일 없던 록밴드 비틀즈(The Beatles), 네 명의 멤버들은 1960년에서 62년 사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밤 8시간 이상씩 연주했으며, 앨범을 내기 전 이미 라이브 공연을 1,200회 이상 마쳤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연습과 공연을 한 것을 바탕으로 비틀즈는 1964년 첫 히트곡을 내며, 전설적인 록 밴드가 되었습니다. 세계 제1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고야 말겠다면 엘리야(왕상18:19~46), 기필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고 말겠다면 엘리사(왕하2),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야 말겠다면 수로보니게 여인(막7:25~30), 반드시 눈을 뜨고야 말겠다면 바디메오(막10:46~52),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줄 때까지 재판을 찾아간 과부(눅18:1~5),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다가가 중풍병자를 고치겠다면 네 명의 친구(막2:1~5), 꼭 아들을 낳고 말겠다면 한나(삼상1), 반드시 전쟁에 이겨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면 압다(사11),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간 에스터(에4).... 이



모든 자들은 기필코 정신, 올인(All-in) 정신, 못말려 정신, 이관사관 정신이 있었기에 시대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운명도 바꾸고 싶습니까? 예수께 올인(All-in)해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26~27)고 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딤후4:13)고 한 것입니다.

물째,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제 나이 이제 70을 바라보면서 삶을 돌아보니 '삶은 곧 만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전(前) 미

국 대통령인 클린턴이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확장시절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후에 꿈을 키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앤 셸리반을 만난 헬렌 켈러를 보세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타고난 헬렌 켈러가 스승을 잘 만나니 사람 구실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가로, 세계적인 문필가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투자의 귀재인 워런버핏(Warren Buffett)과 한 번의 식사를 하려면 수백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 많은 돈을 내고 그 사람과 만나려고 할까요?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만남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를 만난 여호수아가 나

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고, 야곱을 만난 라반이 부요하게 되었으며, 요셉을 만난 바

로가 애굽을 위경에서 건졌을 뿐 아니라 나아가 대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았고, 어둡고 침침했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아침 햇살 같이 환하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별 불일 없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후에 운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일개 농사꾼의 자녀로 태어난 제가 예수님을 만나 오늘날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남이 꼭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과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남이란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책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많은 위인과 성공한 자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인전집이나 성공자들의 자서전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그들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전들도 성경을 통해 만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27:17).

반복하며 노력하는 것이 성공의 왕도다

더욱이 인맥이 잘 구축된 자는 성공으로 가는 동아줄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맥은 금맥이요, 열 천재보다 낫다고 하는 겁니다. 인맥은 약속이라는 고리로 연결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자, 신뢰가 있는 자가 인맥을 일굴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에든 성공하려면, 어느 분야에 전문인이 되려거든, 달인이 되려거든 반복, 반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어렵고, 안 되고, 쑥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자주 반복하다보면 잘 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뿔들로 넘어뜨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 다윗이 중무장한 골리앗의 이마에 물뿔들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이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평소 다윗이 물뿔들을 반복적으로 던져 연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늘 물뿔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 있게 골리앗 앞에 나갔고, 단 한 번에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시대 목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교를 잘 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떨려서 못만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저도 처음부터 귀신을 잘 쫓았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귀신을 쫓는 일인자가 된 것은 반복적으로 귀신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야에 최고가 되는 길은 반복, 반복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배움의 끝은 실천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면 내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인맥은 금맥이요 성공의 인프라다

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도 스케이트에 미쳤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능숙하게 해내는 공중 세바퀴 회전은 본래 남자 선수의 전유물입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이 기술을 연습할 때 한 번 실패하면 65번씩 반복해서 연습했답니다. 미친 듯이, 필 때까지 한 겁니다. 불광불급(不狂不及), 성공에 미치려면 미쳐야 합니다.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못 말려' 소리를 들어야 하고, '하고야 말겠다'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압박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기어코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면 야곱(창32:22~32), 3년 6개월 동안 단련된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제 17회 청년·대학부 수련회

후회 없는 삶을 살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12:1)



“나는 이 성산에서 너희들의 운명이 바뀌길 원한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펼쳐진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는 총회장 목사님이 홍보 영상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의 운명을 바꾸는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난 성회였다. 첫날 저녁집회에 강사로 서신 총회장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안고 모인 젊은이들에게 사력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셨다.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어린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아이는 절대로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힐 수 없다.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실수와 실패라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경험했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실수하고,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자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목회 초창기에 500명의 성도를 이끌다가 교회가 깨지는 경험을 했고, 그 경험에

절치부심하고 성장 발전하여 오늘날 세계 70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 그룹 비틀즈도, 피겨여왕 김연아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며 반복하고 또 반복한 끝에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는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둘째 날 오전집회는 성령을 받기 원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젊은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강사로 서신 이시대 목사님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셨고, 당신의 경험과 성경 말씀을 토대로 성령을 받아야 할 필요성과 유익에 대해 가르치셨다. 마음

문이 열려 단상 위로 올라온 청년들의 입에서는 방언이 터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벅찬 감동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는데, 시작만 지 얼마 되지 않아 굶은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천둥 번개소리를 듣고 나오신 이시대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통성 기도를 시키셨고, 전혀 찾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던 비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를 찬송할 때 거짓말처럼 그쳤다. 놀란 청년들을 향해 이시대 목사님은 일선(一聲)을 날리셨다. “몇 년 전 세계목회자 영성세미나 때도 이렇게 비가 왔었다. 그 때 총회장 목사님은 천 명에 육박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비가 그칠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셨고, 마침내 비가 그치는 기적을 맞았다. 내가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도 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가 그칠 때까지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저녁집회에 다시 강사로 서신 총회장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맞고 또 뜨거워진 젊은이들의 가슴에 재차 불을 뭇기셨다. “인간은 ‘탄남’과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간다. 너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한 일을 너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는, ‘영적 스펙’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라.”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앞으로 이 교단과 온 나라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운명을 바꾼 수련회



2박 3일 동안 운명을 바꿔주겠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온 젊은이들이 그 성산에 몰려들었다. 체육대회에서는 기도와 찬양으로 비를 멈추었고, 단으로 올라온 한 자매는 귀와 입이 열렸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성령이 단비처럼 쏟아졌다.

총회장 목사님은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연 만큼 채우신다(시81:10). 그러므로 입

을 크게 열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꿈이다. 젊은이들은 이 꿈을 잉태해야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꿈을 가져라. 인내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기적을 꿈꾸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너희들이 그런 자가 되길 바란다.”라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자들 중에서 장차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올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말씀에 나는 크게 “아멘”했다.

위대한 생각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서울에수증심교회 김다예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사실 세상고민으로 참가조 결정하지 못하던 저에게 연합회 일원으로 참가해달라는 전도사님의 말씀은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순종했다. 수련회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자후를 토하신,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의 설교는 취업과 공부로 메말랐던 청년들의 영혼을 적셔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

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천재는 없다. 끝없는 노력과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답함과 기필코 정신으로 모든 일에 임하고 배우라”는 이 초석 목사님의 말씀은 환경과 능력을 탓하던 저에게 명쾌한 해답과 새 힘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의 백미는 체육대회였다. 체육대회가 진행될 수 없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시대 목사님을 필두로 청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을 하였고, 마침내 비구름은 걷혔다. 이번 수련회 역시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니다.

인천에수증심교회 전호정

수련회에 참석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고픈 마음에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왔다. 수련회 때 항상 은혜를 많이 받아왔지만, 이번 수련회는 2박 3일로 오히려 짧아졌는데도 여태껏 참여해왔던 어느 수련회보다 좋았고 목사님 말씀이 더 가슴에 와 닿았다. 외국에 있으면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면서 마음에 평안을 찾았다. 특히 히브

리서 6장 11절 이하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한데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는 말씀은 수련회에 오기 전, 꿈에 “히브리서를 보라!”고 하신 것이 생각나서 더 은혜가 되었고, 저를 위한 말씀처럼 느껴졌다. 방학이 끝나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 말씀을 붙들고 노력하여 목표한바 최고의 에니메이션 작가가 되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Academy of Art University 김민식

반복이 성공자를 만든다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성공하기 원하는 젊은이들이 영·혼·육의 갈급함을 모두 해소하는 은혜의 자리였다. 이는 절박한 마음을 품고 성산에 오른 젊은이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신 총회장 목사님의 세미나에서 여실히 입증되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신28:1)”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자와

함께 하신다. 누구나 처음에는 실수,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럽지만 반복하여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세상 풍파에 부딪치고 깨져 의기소침해진 나를 포함한 젊은이들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에 충분했다. 또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자, 기적을 꿈꾸는 자를 찾고 도우시니 큰 그림을 그리고 부지런히 연구하며 자신을 제발하라.”는 말씀은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아 더 넓은 세상과 큰 꿈을 향해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서울에수증심교회 이국진

오늘의 꿈이 미래다



“최소연이 최소연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최소연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최소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최소연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장 1절 말씀에 각자의 이름을 넣어 읽도록 하셨다. 그리고 “무엇이든 처음 하는 일에는 실수와 실패가 따르며 부끄러울 수 있지만, 실패

와 실수,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도전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다. 둘째 날 벌어리 된 자가 목사님께 안수 받아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는 기적을 직접 목도함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였다.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꿈이 오늘이고, 오늘의 생각과 오늘의 꿈이 미래다.” 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수련회를 통하여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곧 나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전주에수증심교회 최소연

‘참석인원 80명’을 내비게이션에 찍었다



이번 수련회 준비는 유난히 힘이 들었다. 개인의 문제로 빠져 나간 일꾼들을 제외하니 7명이 전부. 하지만 이월드 전도사님은 80명을 목표인으로 설정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를 외치며, 하루 서너 시간을 자면서 심방에 주력했다. 7명도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에 총력해진했다. 수련회 당일, 예정대로라면 목표 인원을 초과한 85명이 등록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후발대에 차질이 생겼고, 총원이 76명으로 폭 떨어져버렸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러나 둘째 날 아침,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확증해보이시며 위로를 주셨다.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달려왔고, 4명이 고속버스를 타고 오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80명이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일은 80명 대부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과 성장을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목표한 바를 찍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 주신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대구에수증심교회 신혜영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매년 수련회가 지나면 일꾼들이 지치고, 청년부 분위기가 오히려 가라앉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오랜 기도 가운데 얻은 정답은 바로 “영혼”이었다. 찬양인도보다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바로 수련회에 온 영혼들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련회는 행사가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이 울었다. 행사 위주가 아니라 예배 위주가 되어야 한다. 사실 예전 수련회에는 찬양에 주력하다 정작 목

사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예배에 충실했다.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였다. 수련회 가운데 4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았고 2명의 영혼이 성령을 받는 역사를 체험하였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난 지금 청년부는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기쁨과 기대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다.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014년에는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부흥된 모습으로 수련회를 맞이하길 기대하고 기도한다.

대전에수증심교회 김강산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려나



어렸을 적에는 성령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조금씩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여름수련회에 와서 첫째 날 저녁 총회장 목사님으로부터 “동물의 세계에서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녀석이 잡혀 먹히듯이, 두려움에 떠는 자가 마귀의 제1 먹잇감이다.”라는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망치로 크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것은 주변의 환경과 부모님을 탓하며 현실을 부

정하고, 결국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내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 수련회는 솔직히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올 수 있게 된 것도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느껴졌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으로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설교 말씀을 자양분 삼아, 중국대륙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열심히 영·혼·육의 스펙을 쌓아야겠다.

광주에수증심교회 최인성